전륜성왕을 기다리며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불사리(佛舍利) 관련 기사가 자주 보인다. 태조의 경우 통도사에 모셨다가 왜구로 인해 송림사에 모셨던 부처님의 두골사리(頭骨舍利)를 흥천사에 사리전을 새로 짓고 봉안하였으며, 정릉사 탑 앞에서 법회를 열었을 때 사리 4매가 분신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세종 역시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흥천사 사리전의 유지와 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여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들은 왕조 창업의 정당성 혹은 왕위의 정당성을 논할 때 흔히 나타나는 예들이다. 수 문제는 강남과 강북을 통일한 후 불사리를 얻었는데 1000여 과로 분신하였기에 전국에 인수사리탑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법회를 지역마다 열기도 했다. 이때 불사리의 출현과 분신 그리고 불사리탑의 건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불사리 출현에 의해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곧 왕조창업의 불교적 정당화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전륜성왕을 표방하고, 아소카 왕을 역사적인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동아시아의 왕들도 불교가 전해진 뒤 널리 퍼지자,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건국하고 다스리는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정당성을 보여주는 증명의 하나가 바로 불사리의 출현과 분신 그리고 사리탑의 건립이다.

이상적인 군주 모델 '아쇼카 왕'
불사리 출현 기록 왕일수록 업적↑
스스로 반성하는 리더를 바란다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스리랑카의 불치사 사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리랑카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전해진 뒤 그 사리를 봉안한 절을 지었는데 곧 불치사이다. 그런데 이 불치사리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왕의 통치가 불교의 가르침과 사리에 어긋나게 되면 그 모습을 감추어 보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것이 동아시아에도 전해졌고, 이후 불사리가 출현한다는 사실 자체가 왕의 정당한 통치를 증명하는 신표로 여겨졌던 것이다.

조선전기에 불사리에 가장 열심이었던 왕이 바로 태조와 세종 그리고 세조이다. 세종과 세조로 이어지는 '월인천강지곡'은 부처님의 말씀사리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조가 금강산에서 불사리를 친견했을 때 불사리의 분신이 있었고, 결국 7000여 과를 얻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저 신기한 일 혹은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도자가 자신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에 따른 정책이 정당한가를 고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스스로 앞장서고 남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옛 임금들이 무지해서 불사리의 출현과 분신의 신비를 빌려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불사리 출현과 분신의 기록을 남긴 왕들이 정무에 더 열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스스로를 고민하고 반성하며 고쳐나가는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시대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감정 흐름을 알아차려라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최근 폭염만큼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화에 못 이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쏘고, 내기 바둑에서 칼을 휘두르는 일들. 이런 사건들은 개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화가 날 때 사람들은 제각기 다르게 반응한다. 어떤 이는 화내는 자신을 싫어하며 억압하거나 참는다. 그 결과 우울해지거나 몸이 아파진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서툰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거나 신체적인 증상을 겪는 편이다.

어릴 적부터 '울면 안 된다' '화를 내면 나쁜 아이야'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감정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나쁜 행동'이라 여긴다. 그래서 슬프거나 화가 나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식의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성장기, 안전이 훼손되거나 방임 당하는 경우,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전에도 분노는 억압되었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인 반응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것은 행동화(Acting out)라는 방어기제다. 불편한 감정이나 갈등을 직면하기보다 곧바로 행동으로 표출하며 회피하는 것이다. 이때 그 행동은 종종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자기 파괴적일 수 있다. 행동화는 일시적으로 감정을 해소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가 악화되기 쉽고, 감정표현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감정 의한 행동은 습관 되고
습관은 결국 성격으로 굳어져
감정과 습관, 관찰하고 기록을

이런 행동화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우쭐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동안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배울 기회가 부족했구나'하고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 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이 불편함은 몸 어디에서 감지되나'라고 몸에 주의를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그 상황을 글로 쓰거나, 심리상담을 받거나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화를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연습도 있다.

알아차림이라는 빛을 놓치면, 부정적인 감정에 따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다. 무의식적 반응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향성에 따라 뇌를 자극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하여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 결과,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상태나 반응과는 동떨어진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과거의 감정, 습관, 경험 등이 현재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조건을 '삼스카라(Saṃskāra, 行蘊)'라고 불렀다. '삼스카라'는 과거 경험이 훈습되어 무의식 속에 잠재된 것으로, 유사한 자극을 받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 현재의 인식과 반응에 개입한다.

명상은 삼스카라를 의식의 관찰 아래 두고 점차 해체해 가는 수행이다. 특히 마음챙김(sati, 念) 기반 심리치료에서는 습관적인 사고와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동적인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해보라. 관찰의 힘은 자동화된 마음 회로를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내어, 점차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社 說

남북 평화 화합 기원 법회에 거는 기대

조계종이 오는 8월 14일 서울 봉은사에서 남북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주관하는 '8·15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 법회'는 민족의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갈등과 적대를 넘어 평화로 나아가자는 염원을 모으는 자리다. 이날 발표되는 '남북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 촉구문'은 그 의지를 담아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남북 불교계는 지난 2015년 이전까지 매년 광복절에 8·15 동시 법회를 봉행하며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발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이러한 전통이 멈춰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립과 단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신은 깊어지고, 평화의 길을 멀어진다. 그렇기에 이번 법회가 끊어진 남북 대화를 잇는 상징적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신계사 남북 합동법회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동영 장관 역시 불교계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복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북이 분단과 적대를 끝내고 온전한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을 수 있다. 시민들의 평화 의식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이번 법회가 한반도 평화의 길을 환히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결정 환영한다

3월 25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의성 고운사는 천년 문화유산과 사찰림을 잃었다. 산불은 전각 21동을 전소시켰고 사찰림 전체 면적 248.87ha 중 약 97.61%인 242.92ha가 소실됐다.

이 같은 큰 피해를 입은 고운사가 사찰림의 복원 자연복원을 결정했다. 광범위한 사찰림의 자연복원은 첫 사례로,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산림청을 중심으로 이뤄진 산불 피해림 복원은 피해 나무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심는 인공복원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심어지는 나무들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였고, 기존 숲을 배어 내는 등 추가 피해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대단했다. 실제 고운사가 불교환경연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운사 사찰림의 자연복원 가능성이 확인됐다. 생존한 활엽수 대부분은 빠르게 새싹을 틔웠으며, 다양한 야생조류들도 숲으로 돌아왔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힘에 맡기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현재 조건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숲을 재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이 선택하는 새로운 숲의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자연이 키워낼 고운사의 새로운 사찰림이 사뭇 기대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8월 1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8월 1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1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영산불교 현지사

제적 공고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수행하던 정**(법명 동일스님)에 대하여, 본 교단 장로회의는 교헌 및 교법에 의거하여 제적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로써 정**는 더 이상 영산불교 현지사 소속 승려가 아님을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정**는 2025년 7월 31일부로 현지사를 떠났음을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13일

영산불교 현지사 교정원장 일도 합장